

# 책으로 꽃피우는 지역사랑

유·무형의 문화유산 폭넓게 소개... 자치단체들의 관심 높아

'문화유산의 해'에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책이 속속 선보여 관심을 끈다. 최근에 나온 책만 꼽아도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가 펴낸 《내고장 용인 문화유산총람》, 한국토지개발공사 강원지사의 《강원도 땅이름》, 서울시사편찬위원회가 기획·발간한 《서울의 산》, 대구 달서구청의 《달서의 향토문화》, 경북 문경시청이 발행한 《문경의 명산》 등. 이들 책은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하고 각 지역의 오지랄 넓은 토박이들이 내용을 채웠는데, 일반인들이 읽기 쉬운 평이한 문체와 다채로운 화보가 특징이다.

## 토박이 저자의 발로 쓴 책들

이제까지 지역 행정단체에서 펴낸 지역문화 홍보책자는 A4크기의 코팅종이에 조악하게 인쇄한 소개 팸플릿이거나 8쪽 안팎의 브로셔 정도가 고작이었다. 내용도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수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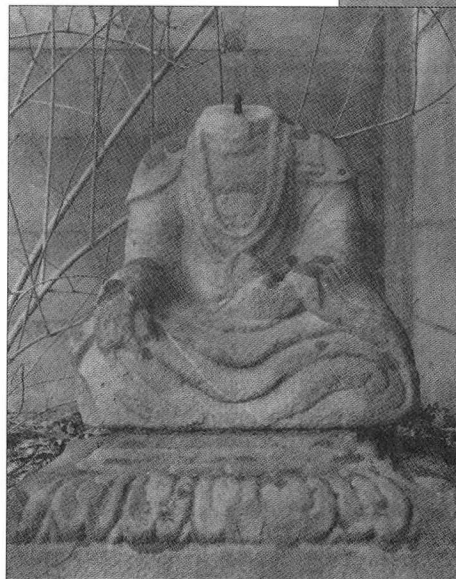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의 책들은 우선 부피에서 차이가 난다. 아무리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도 200면 정도는 거뜰히 넘고, 700면에 달하는 '거구'도 있다. 양이 질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애정과는 비례한다.

주제도 다양하다. 《내고장 용인...》은 선사시대 유물유적, 고분, 사적지, 건조물, 미술·공예·민속자료, 전적·서적·고문서, 삼강행실 유적, 기념물 등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시기도 선사시대부터 조선조 말기까지 아우른다. 달서구청은 현재까지의 약사(略史)를 기술하고, 선사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유적과 구민에게 친근한 동 이름·산·내·들에 대한 지명 유래, 민속놀이, 설화, 민요 등 무형문화재까지 다뤘다.

저자들의 지역사랑도 지극하다. 이미 용인 관련 책만도 공저를 포함해 7권 가지고 있는 《내고장 용인...》의 저자 이인영씨는 용인에서 나고 자라 67년부터 지금까지 용인군청에 근무해 오면서 향토사학자로 활약했다. 이 책에는 지역민들의 무관심 속에 계곡이나 들에서 도굴되고 파괴돼가는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발로 뛰었던 경험을 1천여컷의 사진과 함께 고스란히 담

홍보용 팸플릿에  
그쳤던 각 지역  
행정단체들의 지역문화  
안내서들이 일반인들도  
읽기 쉬운 내용과  
다채로운 화보로 꾸며져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이들 책은 대부분 토박이  
향토사학자들이 쓴 알찬  
내용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85년 발굴 당시 온전했던  
용인의 공세리 불상이 불과 10년 만에  
얼굴 부분이 유실된 채 남아 있는 모습.  
(《내고장 용인 문화유산총람》에서)



았다. 《문경의 명산》을 쓴 김규천씨 역시 8대가 문경에서 살아온 토박이로, 66개 산을 10년 넘게 오르내리며 좁은 산길 하나까지 꼼꼼하게 기록했던 내용을 묶었다.

부산의 향토사학자이자 소설가인 최해군씨는 26년간 모은 자료로 《부산 7000년, 그 영욕의 발자취》(지평)를 3권으로 펴냈다. 각기 선사~조선후기, 개항~일제말, 해방~현재까지 부산의 정치·경제·외교·문화·교육·인문 등을 내용으로 담았는데, 무려 5년 동안 원고지 5000매를 써냈다.

## 지명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도 수록

같은 소재를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관심과 시각을 보여주는 것도 특이하다. 《문경의 명산》과 《서울의 산》은 각기 산의 명칭과 연혁, 자연생태, 경승지, 등산로, 사적, 문화재 등의 내용이 비슷하게 담겨 있지만 한 가지 관점으로 산을 배열했다.

《문경의 명산》은 우리 고유의 산줄기 개념으로 산을 배열·설명해 백두대간을 따라 산이 물을 건너지 않도록 북으로 갔다가 문경을 감싸 안고 예천군과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 속리산에서 문경으로 돌아온 산줄기로 구성했다.

한편 《서울의 산》은 역사적·지리적 입장에서 서울의 진산인 북한산과 서울의 도성이 지나는 내4산, 즉 북악·낙산·인왕산을 서술하고 서울의 조산(朝山) 관악산을 독립해 기술했다. 서울시사편찬위원회는 《서울의

산》 이후 서울의 고개, 나루터, 하천 등을 폭넓게 다룰 계획이다.

《강원도 땅이름》도 '땅이름'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46배판 420면의 방대한 책이 됐다. 도내 행정지명 1,462개와 산·하천·사찰 등 자연지명 908개 등 모두 2,370개의 지명을 사전식으로 배열·설명했다.

대표적인 석회동굴인 영월 하동면의 고씨동굴은 임진왜란 당시 고씨 가족이 피난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며, 무궁화가 많이 피었던 지역이라 붙여진 춘천 근화동, 조선 때 황장목을 많이 심어 나무가 많다는 의미의 다목리, 달이 뜨는 봉우리마을이라 하여 부르게 된 동해 달방동 등 지명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 읽는 맛도 있다.

출간된 지 조금 지났지만 《강원도 산성기행》(진용선, 집문당) 또한 강원도내에 무너져 내린 산성들을 찾아다니며 기록했고, 수원성 건립 200주년을 맞아 결실을 본 《꿈의 문화유산, 화성》(신구문화사)은 한신대 국사학과 유봉학 교수가 200년전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였던 수원의 정치·경제·사회상을 책으로 복원해 냈다.

## 지자체 업적주의 경계해야

이같은 지역관련 책들은 지역민이나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소용될 만한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유가로 배포되고 있다. 《문경의 명산》은 무가로 1천부를 찍었다가 1만2천원이라는 적

지 않은 가격을 붙여 '산악문화'에서 1천부를 다시 찍었고, 일반 서점까지 배포되지는 않았지만 《내고장 용인...》도 책값이 2만원이다. 서울시청이 펴낸 《서울의 산》 역시 정 부간행물을 취급하는 서점에서 5천원에 판매되고, 《강원도 땅이름》은 재판에 들어갔다. 상업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출판을 맡기도 한다.

책의 내용 가운데는 학계나 연구자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만한 내용이 많다. 《내고장 용인...》에 실린 수양증계첩 등의 전적은 당시의 풍속과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필수 자료이며, 최초로 공개된 조선시대 일호 남계우의 '산수도'는 그간 나비그림 전문가로 알려져 있던 일호의 작품세계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달서의...》에 수록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의 활동내역이 기록된 월곡 우배선의 《창의유록(倡義遺錄)》 및 관련문서와 대구·경북지방에서 유일한 신당동 석장승 등 지방지정 문화재는 쉽게 접하기 힘든 자료다.

이들 책은 중앙문화에 가려 대수롭지 않게 도외되고 멸실될지 모르는 유·무형의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지역내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사전작업으로도 요긴하다. 하지만 이들 책이 지자체의 업적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현주 기자